

종합

“5년간 수능 1등 ‘실력광주’ 비결 뭘까”

국감 의원들 광주시교육청 이례적 극찬

박지사 “전남쌀 3만6천t 자체수매 검토”

광주·전남지역 기관들에 대한 올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6일 전남도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전남대학교를 대상으로 열렸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탁월한 교육성과에 대한 이례적인 극찬이 쏟아졌으며, 전남도청 국감에선 전남도의 미흡하고 안일한 농정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전남도청=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낙연·민주당)는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쌀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마련과 천일염 육성 미흡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전남산 쌀의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전남도는 대정부 건의만 하고 있을 뿐 자체 대책이 없다”면서 “2008년 산 재고 쌀을 전남도가 자체 수매하는 노력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에 대해 “쌀 농민들의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300억~4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쌀 3만6천t 정도를 자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도의 미흡한 천일염 육성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수(한나라당) 의원은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돼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됐는데도 국내 독보적인 천일염 생산자인 전남도가 아직도 담당 부서를 경제과학국에 두고 있다”면서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광주·전남 교육청=5년간 수능 1등’의 성과를 올린 광주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국

감사에서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16개 시·도의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안순일 교육감이 첫 부임한 지난 2005년 광주의 언어영역 순위는 13위, 수리영역은 8위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과목 모두 1등이 됐다”고 극찬했다.

조 의원은 “광주의 사례처럼 교육감 한 사람이 바뀌면 성적도 바뀌게 된다”면서 “학교도 교장 한 명이 성적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교장이나 교사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더욱 전념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안 교육감에게 ‘수능 1등 비결’을 물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남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낙후된 농산어촌 교육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농산어촌 교육을 외면하는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말살 정책을 막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일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도서벽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대학교=의원들은 전남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교수진의 도덕 불감증과 로스쿨 학생 이탈, 교육 여건 부실 등을 집중 추

궁했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전남대 전임교원 징계 대상자는 지난 2007년 5명, 지난해 7명, 올해 현재 5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타 국립대학을 압도하는 건수로, 징계사유도 동료교수 폭행과 연구비 횡령, 학생 성희롱, 현직관사 협박 등 부끄러운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과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심각한 학생이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 선발전원 119명 가운데 10명(8.4%)이 결원 또는 휴학중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5.9%)보다 결원율이 높다”면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려는 학생까지 합하면 결원증가에 따른 운영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국감 광주·전남지역 기관들에 대한 올해 첫 국정감사가 열린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설

‘무너지는 전남농촌’ 이대로 방치할 건가

각종 귀농정책과 농업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전남에서만 연간 1만명 이상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가 최근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 인구는 지난해 말 43만9천명으로 8년전인 2000년에 비해 16만7천여명이 감소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청·장년 층의 탈농업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38.3%인 16만8천 명에 달한다.

전남 농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은 농사를 지어봐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태풍 피해도 없고 일조량도 좋았던 올해 황금 들녘엔 풍년과 대신 농민들의 긴 한숨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수확량은 늘었지만 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와 경기침체로 수요가 준 탓이다. 이때문에 농가소득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산물 수출 대가로 농업을 희생하는 개방 농정이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파고들면서 2003년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정부 지원은 해가 갈수록 감소했고 농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만 내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단순한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식량 주권을 지키는 공급기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환경보존과 문화 창조와 같은 농업이 지니는 다원적 가치도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유통체계 개선과 같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호남권 고용시장 개선, 안심할 단계 아니다

호남권 고용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는 9월 취업자 수가 66만 1천명으로, 전남에 비해 7천명이, 전남은 92만6천명으로 전남에 비해 1만7천 명이 각각 증가했다.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광주의 경우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9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만3천명이나 줄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6만1천명으로 14만9천명(36.1%)이 늘어났다. 전남 역시 비임금근로자가 3만6천명 감소하고, 임금근로자는 4만8천명이 증가했다.

고용시장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 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전남지역 취업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청년 실업률이 광주 6.3%, 전남 5.1%로 높다. 광주은행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시중은

행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경기회복이 본격화했다고 하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시장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경기 회복 기미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흡하다. 지역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새로운 일자리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극심한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다.

신안 새천년대교 5천t 선박 다닐수 있다

박지원 의원측 국토부 설계변경 확인

신안군 압해도와 압태도를 잇는 ‘새천년대교’가 5천t급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변경된다.

16일 민주당 박지원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이 전남 국토해양부 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천년대교’가 5천t급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초 계획대로 다리가 건설되면 3천t급 이상 선박들은 단거리 항로를 다니지 못하고 외해(外海)로 빙빙 돌아 3~5시간이 더 걸려 1척당 1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천년대교는 공사비 5천500억원이 투입되며 총연장 10.8km에 교량 구간은 7.2km로 신안군 자문등 9개 면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교포항이다. 지난해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났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jkpark@

고가구매 강진청자 2점 공개 재감정

郡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강진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고가 구매 논란이 일고 있는 청자 2점에 대해 공개 재감정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16일 밝혔다.

감정 대상은 2007년 사들인 ‘청자상감연

국도묘관과형주자’와 올해 산 ‘청자상감도란문정병’ 등 2점이다. 군은 청자유물 고가 구매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고교학에 안목이 있는 언론인으로부터 재감정 위원으로 6명을 추천받았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구매 과정에서 감정에 참여한 위원과 원 소장자 등 8명을 사기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군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청자 고가 구매’ 논란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감정,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강진군은 청자의 산실인데도 문화재급 청자가 한점도 없어 지난 2007년과 올해 ‘청자상감연국도묘관과형주자’와 ‘청자상감도란문정병’ 등을 각 10억원에 구입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빛의만평

- 김중두

바야흐로 ‘발출공안시대’가 왔다

山水 뮤지컬 ‘영암아리랑’ 제작

한국의 문화와 예술, 자연을 담은 산수(山水)뮤지컬 ‘영암아리랑’이 제작돼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월출산 자락의 수상(水上) 무대에 올려질 전망이다.

영암군은 중국 항주 서호의 넓은 호수 위 무대에서 펼쳐지는 장예도 감독의 ‘인상서호(印象西湖)’에 버금가는 수상 뮤지컬 제작에 나섰다. 영암군은 16일 군청 회의실에서 ㈜영아트 테인먼트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담아낼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을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고자 3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암아리랑 공연이 시작되면 1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75만명이 영암을 방문할 것으로 분석했다. /영암=이상휴기자 ls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문 화 생 활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화 생 활 부 2200-661 여 령 매 체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 고 매 케 팀 국 2200-521 (F A X 227-9500) 다 자 인 2200-536 (F A X 02-773-9331)	문 화 홍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생활 게시판

화측

▲박명호·정정금씨 장남 동신군 판 반 추안·누엔 티 마이씨 차녀 판 티 뎃 양=17일(토) 낮 12시 금남로 카톨릭센터 뒤 대동갤러리.

▲공석준(한국 열관리 시공협회) 광주시회 사무국장·김안순씨 장남 성아군 권오준(영주중 교사)·이상열씨 장녀 최희양=17일(토) 오후 1시 광주 오델로씨 웨딩홀 1층.

▲김정국·유인자씨 장남기원군 박종교(광주서중·일고 총동창회 총무이사)·이애영씨 장녀 선영양=17일(토) 오전 11시30분 서울 배재체 웨딩컨벤션(구 서초웨딩홀) 4층(아모리스홀).

▲이덕수(전 전남도 감사관)·박혜숙씨 장남 태용군 박성균·하경진씨 장녀 은지양=17일(토) 낮 12시4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예식홀).

▲김상수(조광전기 대표이사)·홍혜숙씨 장남 보형군 김정식(서경수산 대표)·유정란씨 차녀 세움양=17일(토) 낮 12시30분 신안파크호텔 1층(그랜드볼룸).

▲Edward Grant·Sandra Grant씨 아들 John Grant군 김영진(광주도시공사 사장)·강명자씨 장녀 도연양=17일(토) 오후 1시40분 광주 에블루션웨딩컨벤션 1층(세이지홀).

▲정정남(전 지하철 건설본부 재무과장)·최복단씨 차남 인규군 이대진·임인숙씨 장녀 숙현양= 17일(토) 낮 12시30분 금호빌딩 웨딩의전당 30층(아도니스홀).

▲고재승·정금례씨 사남 갑석군 기인호·안점례씨 장녀 정희양=17일(토) 경기와웨딩홀 5층 청실(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허정(전남매일 전 광고이사)씨 장

남 남군 이남재씨 차녀 선희양=17일(토) 오전 11시40분 조선컨벤션 1층(춘추관)

▲김장환·양경자씨 장남 재광군 박용규(광주시의회 사무처 의안계장)·임은순씨 장녀 선아양=18일(일) 낮 12시 30분 목포 웨딩팰리스 1층(라벤더홀).

▲황재만(금호타이어)·진순아씨 장남 인해군 김종익(조대부고 체육교사)·편영희씨 장녀 슬기양=18일(일) 11시 40분 광주 갤러리아 웨딩컨벤션 1층(다이하드홀).

▲정영덕·양영심씨 차남 정운군 오윤택·김일심씨 장녀 해미양=18일(일) 오후 1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아도니스홀).

▲김영원·유연자씨 차남 형준군 문장수·이정애씨 막내 주선양=18일(일) 오전 11시30분 호텔프라도 2층(다이아몬드홀).

부음

▲장연지씨 별세 강영수(전 감사아과 원장)씨 상배 강원호(연합소아과 원장)·필승(영화엔지니어링 이사)씨 모친상 정경용(변호사)·강을석(재미의사)·주경림(사업)·유동식(유 안과 원장)씨 방모상=발인 18일(일)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실. 062-227-4382

▲윤석순씨 별세 고순자·춘자·영순·영희·영란씨 모친상=발인 1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남기화씨 별세 안정신씨 모친상=발인 1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송기환씨 별세 삼중·영중·희중·송중(광주시 사무관)·호준씨 부친상=발인 17일(토) 장흥군 우리병원 중앙장례식장. 061-863-2444.

▲김천호씨 별세 형범(제일장식개발 대표)·병근·병남·병덕·정월·형순씨 부친상=발인 1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